

## 사료등 부가세 영세율 적용 헌법재판소 제소 방침

— 축산관련단체 협의회에서 결정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 전동용)는 지난 5월 28일 오전 7시30분 삼정호텔 연회실에서 조찬회를 개최하고 사료,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등의 관세·부가세 영세율적용 추진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조찬회에서는 12개 축산관련단체장 및 대표 등 18명이 참석하여 지난 81년 9월 3일부터 17차례에 걸쳐 청와대,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수산부, 감사원, 국회 각 정당 등 관계 요리에 건의한 사료,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관세·부가세영세율적용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는 부가세를 생산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조세의 형평에서 어긋나며 축산물 수입확대에 따른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현재 관세·부가세 영세율적용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추후협의키로 하는 한편 변호사선임은 양돈협회 제5대회장을 지냈으며 축산 업계와 관련을 맺었던 소신있는 임영득 변호사를 선임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앞으로 관계 각 부처 장·차관 등을 참석시켜 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UR협상으로 인한 수입개방이 우리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나아갈 방향 등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다음에 논의키로하고 조찬회를 마쳤다.

## 농림수산부 '91 돼지고기, 쇠고기 가격 안정대 설정 발표

〈표〉 '91년 축산물 가격안정대

〈돼지고기〉

구 분	지육기준		성돈90kg기준		B/A
	'90(A)	'91(B)	'90	'91	
상한가격	원/kg 2,430	2,510	천원 140	145	% 3.3
하한가격	1,650	1,740	95	100	5.5

\* 산출방법 : 과거(5)년간 농가평균 판매가격×생산비증가율×(1±가격진폭율/2)·소의 경우 7년간 평균가격 적용

〈쇠고기〉

구 분	지육기준		수소400kg기준		B/A
	'90(A)	'91(B)	'90	'91	
상한가격	원/kg 7,580	7,980	천원 1,800	1,900	% 5.3
하한가격	5,940	6,350	1,400	1,500	6.9

최근 농림수산부는 돼지·소의 주기적인 가격 파동을 방지하고 돼지고기, 쇠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91 돼지고기, 쇠고기 가격 안정대」를 설정 발표 했다.

이번 발표한 '91 축산물 가격안정대는 돼지고기는 5개년(86~90), 쇠고기는 과거 7개년(84~90)간의 평균 농가판매가격과 생산비 증가율을 적용해 기준가격을 산출한후 가격 진폭률을 적용하여 상·하한가격을 산출한 결과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수급상 부족되는 8천톤의 돼지고기를 수입 충당하고 있고 가을 성수기를 대비하여 추가 수입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혀 많은 양돈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 E.C 보조금 일부 감축기로 합의

유럽공동체(EC) 12개국 농무장관들은 지난 24일 브뤼셀에서 나흘간에 걸친 협상을 갖고 '91, '92년도 농산물가격 보조금을 동결 또는 일부 축소한다는데 전격 합의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국제무역협상에 적극 대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C집행위원회가 미·유럽공동체 간 농업보조금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제시한 절충안을 논의, 대부분의 농산물가격 보조금을 현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일부 감축하고 농산물 과잉생산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했다.

### 「돈육수출촉진협의회」 정부산하 기구로 정례화

김정용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은 지난 16일 「돼지고기 수출촉진협의회」가 열린 자리에서 「돼지고기의 수출을 활성화시키기위해 돼지고기 수출촉진협의회가 정부산하의 상설기구로 정례화 될것」임을 밝혔다.

또한 김정용 축산국장은 「돈육수출이 활성화돼야 국내 양돈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입개방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돈육수출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 노영한전무를 비롯,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돈육수출관계자들은 「정부에서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수출을 하라고 강요하고 상승하면 아무런 애기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가격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돼지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돼지가격안정대 사업을 현실성있게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물론 양돈산업 구조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농림수산부 양돈계열화 지원업체 부산·경남 양돈조합 등 3곳 선정

농림수산부는 '91년도 양돈부문 계열화사업 지원업체로 부산·경남양돈조합, 서울·경기양돈조합, 제일농장 등 3곳을 선정하고 이와관련해 계열화사업대상가축 및 규모사업자 지정절차, 사업방법, 수급조절 등 가축계열화 생산사업을 위한 추진요령을 지난 16일 공고했다. 계열화 지원업체에는 업체당 25억씩 지원된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돼지고기 수출기반 육성책의 일환으로 계열화사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축산물 생산기반 및 계열화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들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돼지고기 수출업체 2곳선정 지원

농림수산부는 현재 돼지와 닭의 계열화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중 축종별로 2군데씩을 수출업체로 선정해 냉장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20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같은 수출을 통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육질개선 및 축산물의 가공과 유통사업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수출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돼지는 도축장과 가공장,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여야 하며 냉장돼지고기가

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지원희망업체는 오는 6월말까지 농림수산부에 신청업체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성명서 발표

### -쌀은 절대개방할 수 없다

농민단체협의회(대표: 강춘성)는 지난 4월 26일 정부의 쌀개방 움직임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정부가 국내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민건강유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쌀 개방 불허방침에 단호함을 보이며, 소수를 위한 농정보다 대다수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망국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은 박수길 협상대표를 즉각 교체하고 모든 공직에서 파면시켜 정부의 농업정책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 일본 비육돈(100kg기준)생산비 14만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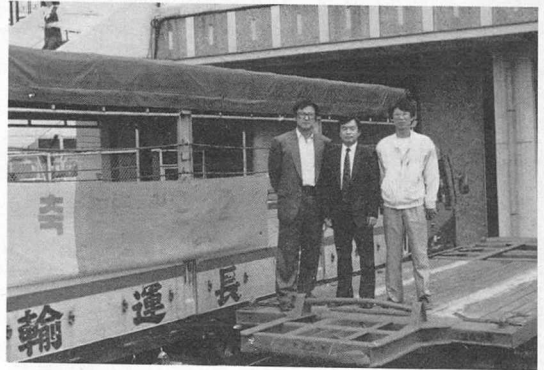
일본 농수성통계정보부가 3월중순 공표한 비육돈 1차생산비는 전년대비 1.9% 감소한 144,021원으로 나타났다. 2차생산비는 전년대비 2.1% 감소한 145,939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돈의 1차생산비는 77,700원(전년대비 0.2% 감소), 2차 생산비가 80,483원(전년대비 0.5% 감소)으로 나타났다.

## 선진원종, 일본에 종돈 32두 수출

### -5월 8일 부산에서 페리호로 32두 선적

국내 최대의 종돈 생산 업체인 선진원종의 종돈 32마리가 일본으로 수출됐다.

지난 5월 8일 16시 부관 페리호로 부산항을 출발한 선진원종 종돈은 랜드레이스 19두(암 13두, 수6두)와 대요크셔 13두(암11두, 수2두)로 총 32두가 일본 구주(九州)지역으로 수출됐다.



선진원종은 이번 종돈 수출을 계기로 앞으로 대일 종돈 수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일부 종돈장에서 소량을 단편적으로 수출하던 것과는 달리 일본 종돈 검수팀이 선진원종을 방문해 종돈을 직접 선발했으며 앞으로 일정한 두수를 정기적으로 수출할 계획이어서 일본의 종돈 공급 기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일본의 구주(九州)지역은 부산에서 페리로 8시간 거리로 인구는 약 1천만명이며 본주(本州)의 오사카 남쪽의 인구 2천만명을 감안할때 노력만 하면 최대의 축산물 소비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 일본 「후쿠시마」 계통돈 인정

일본종돈등록협회는 3월 15일 돼지계통 조성중앙위원회를 열고 福島縣 축산시험장이 조성한 랜드레이스 계통인 「후쿠시마L」 계통돈을 인정했다.

일본 福島縣 축산시험장은 83년 10월 1일에 계통조성에 들어가 7년 2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일 새로운 계통돈을 조성한 것이다.

## 미국 세계양돈박람회 참관단 출발

본회 김형균 제2검정소장을 단장으로 한 세계양돈박람회 참관단 40명이 지난 5월 30일 미국 아이오와주 데모인으로 출발했다.

이번 참관단들은 5월 31일~6월 2일까지 데모인에서

최우수 종돈, 양돈기자재, 돈육요리, 약품, 양돈정보 및 매체 등을 보며 미국양돈협회 관계자들과도 만날 예정으로 되어있다. 이들은 로스엔젤스, 호놀룰루를 거쳐 6월 7일 귀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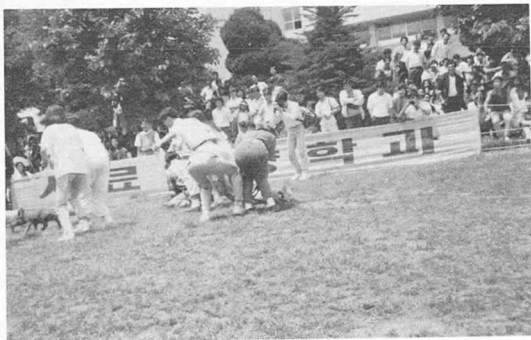
### 월축회 결성

지난 4월 29일 오후 7시 축산·사료산업분야 단체의 상근임원 및 실무책임자를 정회원으로 한 월축회가 결성 되었다.

월축회는 이날 모임에서 회장에 김동곤 한국육가공협회 부회장을, 부회장에 유동준 한국단미사료협회 부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월축회는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월례회를 열고 축산업계의 공동관심사와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발기인은 본회 노영한전무를 비롯하여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무이사, 김동곤 한국육가공협회 상근부회장, 이규성 대한양계협회 전무이사, 이흥구 한국육가공협회 전무이사, 유동준 한국단미사료협회 상근부회장 등 7명이다.

### 건국대 「돼지와 즐겁게」 행사 개최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사료영양학과는 지난 5월 29일 개교 45주년 기념 일감호 축전행사의 일환으로 제9회 「돼지와 즐겁게」 행사를 열었다.



본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돼지고기 시식회와 농촌 현실풍자 및 수입돈육문제를 비판한 “코믹투우” 등 돼지고기 소비홍보 행사가 벌어졌다.

### 「축산배설물 위생관리 현황과 문제점」 심포지움 개최

#### -6월 14일 한국마사회에서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회장 : 김순재)는 오는 6월 14일 오전10시 30분부터 한국마사회(과천)에서 「축산배설물 위생관리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1991년도 춘계 국제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축산배설물 처리제도와 문제점 ▲축산배설물 관리현황 ▲축산배설물 위생적 처리를 위한 미생물 이용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문의처 : (0343)49-2151~5(가축위생연구소)

### 농수축산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리셉션

농수축산신문은 지난 24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창간 10주년 기념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날 리셉션은 관련단체장 및 관련인사 5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장태현 농수축산신문 발행인은 「10주년을 계기로 1찬산업전문지로서 굳건히 뿌리를 내려 농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국립종축원 전화번호 변경

국립종축원(원장 : 박태진)은 보다 원활한 업무의 추진을 위해 전화를 증설하였다. 변경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교환실 : 581-2081~5

▲원장실 : 581-0434

▲원장숙소 : 581-0435